

울산광역시 생태관광센터 _ 2017. 3

Ulsan Taehwagang Visitor Center





발 주 자 울산광역시청

설 계 자 박철현 KIRA | 태인씨디에이 종합건축사사무소

김효엄 KIRA | 무아 건축사사무소

설 계 팀 장진형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07번지(오산광장 일원)

대지면적 389,169.00㎡ 중 1,500.00㎡사용

건축면적 414.04㎡

연 면 적 597.85㎡

건 폐 율 27.60%

용 적 륜 39.86%

규 모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마 감

외부마감재 : 송판노출콘크리트, 목재루버,

내부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인테리어필름, 메쉬천정재

‘Hard Context / Soft Edge’ - 건축에 담아내는 태화강과 십리대숲의 이야기

도시적 맥락의 끝자리에 위치한 대지는 도시의 상황이 십리대숲과 태화강의 자연환경과 충돌하며 경계를 이루는 장소이다. 제안하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센터는 이러한 물리적, 심리·문화적 경계의 상황을 중재하면서 이 둘의 상반된 맥락을 통합해 하나의 경관으로 작동하는 건축이고자 했다. 건축이 만들어내는 픽처 프레임에 담긴 태화강과 십리대숲의 풍경은 도시로 확장되며, 도시적 상황은 건축에 투영되어 자연과 연결된다. ‘명확했던 맥락적 경계(Hard Context)’는 생태관광센터의 유기적이며 다공적인 공간을 통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며 ‘부드러운 언저리(Soft Edge)’의 장소를 형성한다.

○ 배치계획 :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대지가 형성하는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 북쪽의 도로와 평행한 배치를 계획했다. 동서 방향의 선형으로 길게 놓이게 되는 생태관광센터는 북쪽의 도시적 상황에 대응하면서 남향의 풍부한 채광을 확보한다. 남향 전면에 펼쳐지는 광장과 십리대숲의 빼어난 조망을 건축물에 담는다.

○ 평면계획 : 내부와 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간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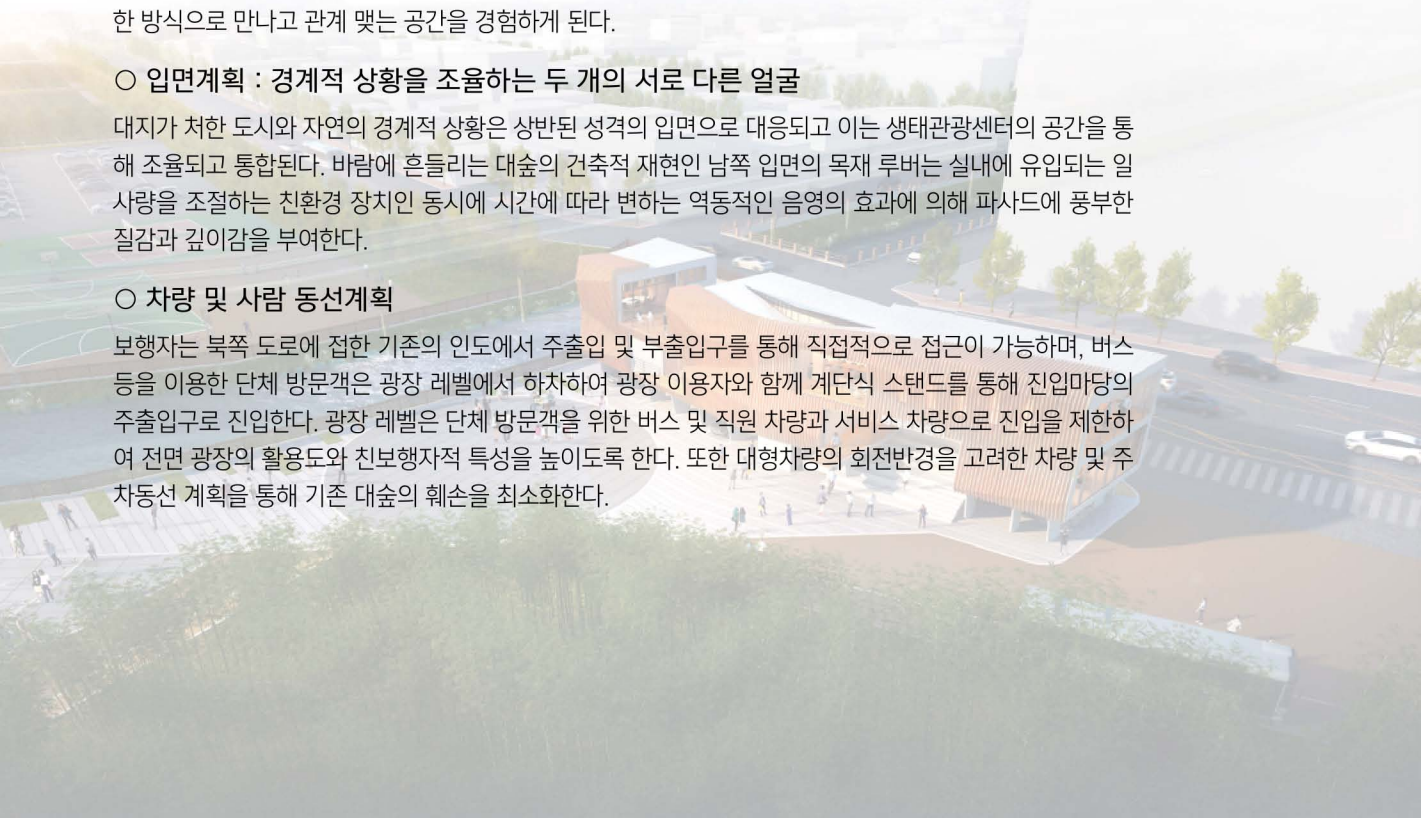
판매와 전시, 상주직원 사무실 등과 같이 별도 또는 독립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기능과 프로그램의 시설을 양 단부에 위치시켰다. 코어와 함께 보다 다양한 행위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휴게, 전망 등의 중성적 공간은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방문자의 이동에 따라 각각의 공간이 특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공간 속에 통합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방문자는 도시와 자연,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건축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관계 맺는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 입면계획 : 경계적 상황을 조율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얼굴

대지가 처한 도시와 자연의 경계적 상황은 상반된 성격의 입면으로 대응되고 이는 생태관광센터의 공간을 통해 조율되고 통합된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숲의 건축적 재현인 남쪽 입면의 목재 루버는 실내에 유입되는 일사량을 조절하는 친환경 장치인 동시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역동적인 음영의 효과에 의해 파사드에 풍부한 질감과 깊이감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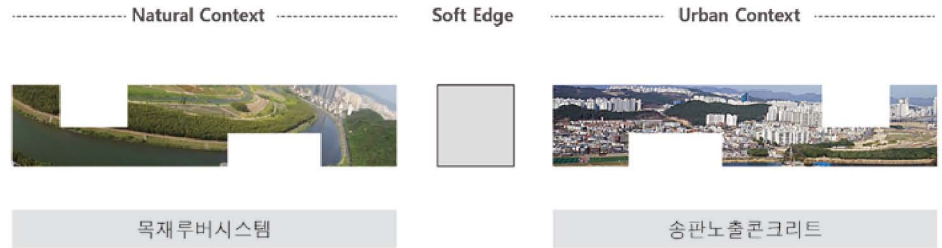
○ 차량 및 사람 동선계획

보행자는 북쪽 도로에 접한 기존의 인도에서 주출입 및 부출입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 등을 이용한 단체 방문객은 광장 레벨에서 하차하여 광장 이용자와 함께 계단식 스탠드를 통해 진입마당의 주출입구로 진입한다. 광장 레벨은 단체 방문객을 위한 버스 및 직원 차량과 서비스 차량으로 진입을 제한하여 전면 광장의 활용도와 친보행자적 특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한 차량 및 주차동선 계획을 통해 기존 대숲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 입면계획개념

□ 맥락적 파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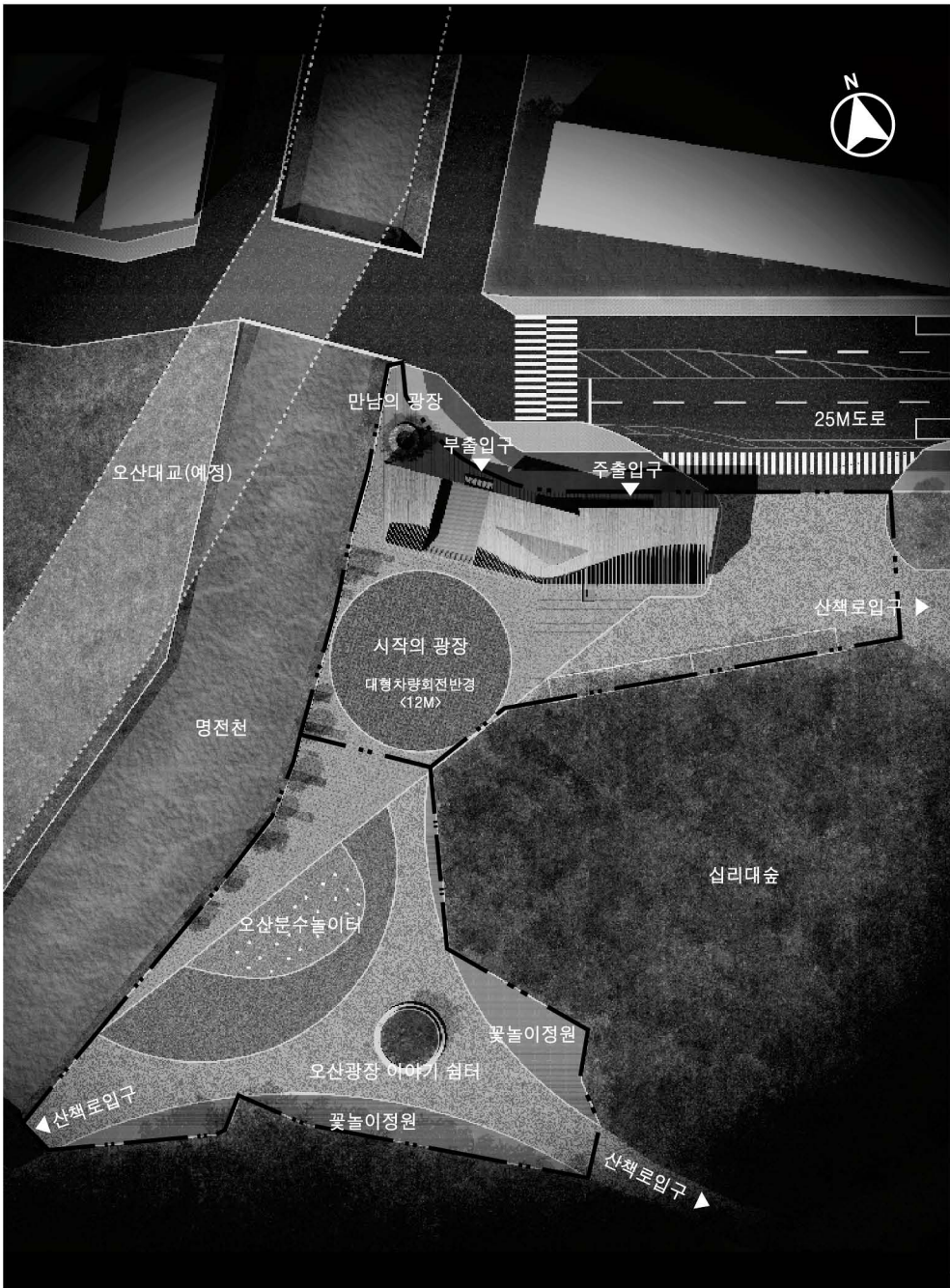
□ 루버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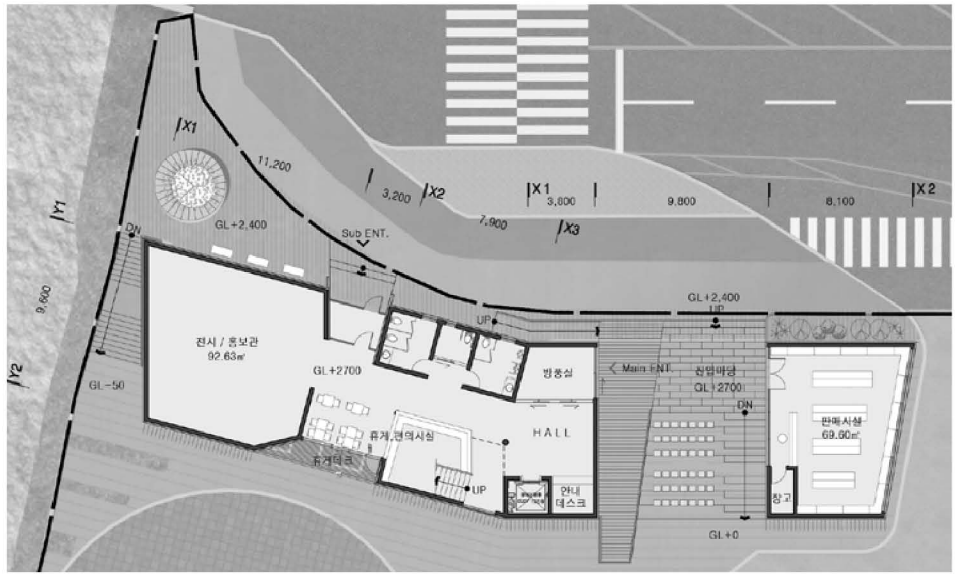
목재 루버는
실내에 유입되는 일사량을 조절하는
친환경 장치인 동시에 시간에 따라변하는
역동적인 음영의 효과, 파사드의 풍부한 질감과 깊이감을 부여

경계적 상황을 조율하는
두개의 서로 다른 얼굴

바람에 흔들리는 대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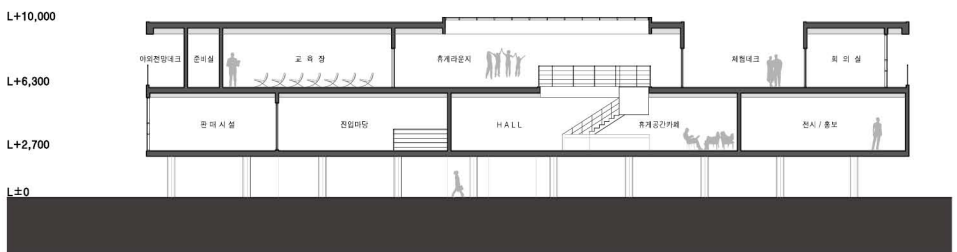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